

## 2000년도 어항건설예산 1,636억 4,800만원

정부안 올해보다 4.5% 증액,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키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 정부안이 1,636억 4,800만원 규모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금년대비 4.5%인 7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3.3%가 늘어난 1,425억 8,800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농특회계에서 25억원이 늘어난 182억원이다.

남해안 일대 11개 시와 12개

군지역일대 총면적 1만 4,000km<sup>2</sup>의 관광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부산도시관광권의 경우 동부산권 그린타운과 U.N기념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또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한려수도조망대, 통제영복원, 해금강지구 정비, 진해군함박물관신축, 고성 백악기공룡파크 △종합휴양관

관광=하동 고소성유적지, 여수 사도·남도지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해수·녹차 휴양타운 조성 △역사문화관광권=해남 공룡화석지, 원도청해진유적, 목포삼학도복원, 진도아리랑마을 조성 등이 추진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반시설사업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되 권역별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 2000년도 어항건설예산 요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99예산(A)	2000예산(안)(B)	증감	
			(B)-(A)	%
합계	156,530	163,648	7,118	4.5
○ 제1·3종어항	137,970	142,588	4,618	3.3
- 일반회계	69,000	83,000	14,000	20.3
- 농특회계	68,970	59,588	△9,382	△13.6
○ 제2종어항	15,700	18,200	2,500	15.9
- 일반회계				
- 농특회계	15,700	18,200	2,500	15.9
○ 소규모항	2,860	2,860		7.4

이와함께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8억 6,0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조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과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새 천년의 원년인 새해 어항건설예산 정부안이 1,636억 4,800만원 규모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심의 요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초 요구 예산에서 무려 100억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물론 2천년 새해 어항건설예산은 그래도 올해보다 4.5% 71억 1,800만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제1·3종 어항건설예산은 올해보다 3.3%가 늘어난 1,425억 8,800만원이며, 제2종 어항은 농특회계에서 25억원이 늘어난 182억원으로 비교적 증액규모가 큰 편이다.

그리고 지난 6월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육지 소규모항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실 새해 예산에 대해 어항인들이 거는 기대가 컸다. 그 이유는 지난 8·15행사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IMF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나, 작은 정부를 지향, 가능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해 건전재정을 이룰려는 정부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이나 어항건설 예산을 책정한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의욕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싶다.

어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어항건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남다른 노력과 해양대국을 향한 의지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무 썰듯 몽텅몽텅 잘려 나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전체 외형을 결정해 놓고 거꾸로 그 외형에 예산을 맞추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산업이나 어항산업의 현실로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데엔 이유가 있다.

위기로 치닫는 전환기의 한국수산에서 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어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서 시작해야 하고, 둘째, 과거 단순개념의 어항에서 어촌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한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인 어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셋째, 국토의 보존 개발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아름다운 해안공간의 창조로 국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의 집중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태의연한 나눠먹기식 예산책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과감한 예산확대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3면이 바다인 천혜의 해양자원을 무기화 혹은 세력화하여 21세기 세계 1류 대국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어항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1차로 걸린 책정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육지자원이 점차 고갈돼 가는 지금 결국 인간의 희망은 바다로 옮겨갈 수밖에 없음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한시 빨리 바다를 우리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는 결국 바다에 대한 과감한 투자 외엔 묘방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올해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이듬해 그 이듬해 역시 어항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과감한 승부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즉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항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확보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조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은 어항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슬기로운 대책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지과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 하니 더더욱 마음 든든하다.

아무쪼록 이 모든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침언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 새천년 첫해 어항예산 국회 원안 통과돼야

### 어항협회 수중침적폐기물정화공사 계약

## 국동항 삼건사, 통영항 동광건설에

한국어항협회는 현재 정부용역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중침적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 국동항과 통영항의 수중침적폐기물정화공사를 위한 입찰결과 (주)삼건사와 동광건설(주)과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완료해야 한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구분	국동항수중침적폐기물정화공사	통영항수중침적폐기물정화공사
계약금액	232,162,104원	336,161,540원
계약일	1999. 9. 10	1999. 9. 14
계약자	주계약자 : (주)삼건사 대표 정덕용 공동수급자 : 해송건설(주) 대표 박환성	주계약자 : 동광건설(주) 대표 황금주 공동수급자 : (주)동신산업개발 대표 옥성표
착공일	1999. 9. 13	1999. 9. 21
완공일	1999. 11. 16	1999. 12. 19

## 해양레저·휴양·역사문화권 등 남해안 4개권역 해양단지 개발

예산처 2011년까지 4조원 지원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부산·목포간 남해안 일대 국제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국고 4조원 등 모두 1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15일 기획예산처는 오는 2011년까지 국고에서 4조원을 지원, 총면적 1만 4,000km<sup>2</sup>에 달하는 남해안 일대를 대단위 국제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12년간 국고를 포함해 총 12조원이 투입예정인 △부산도시 관광권 △통영중심 해양 레저스포츠관광권 △여수중심 종합휴양관광권 △목포중심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권역별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남해안 국제 관광벨트조성을 위해 내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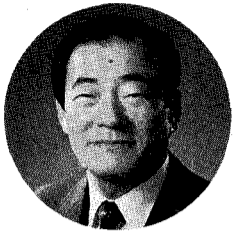
500억원의 신규예산을 기반 시설사업비로 반영하고 권역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도로 등 각종 지원시설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는 정부가 향후 관광자원을 고부가가치창출로 연결, 국가차원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첫 대단위 사업으로서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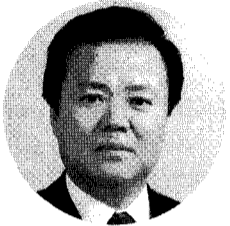
### 추석성수품 유통 및 물가현장을 시찰



鄭相千 해양수산물부장관

▲정상천 해양수산물 부장관은 9월2일 주한 필리핀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운항만 분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3일에는 남해안에 발생한 유해성 적조 발생 및 방제현장을 헬기로 순시하고, 적조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어업인과 관계공무원을 격려 이어 고흥 완도 흑산도 지역을 방문하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 10일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2회 한립원 원탁토론회에 참석하여 '신해양시대의 해양수산물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과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해양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해양진출과 개발 및 해양의 효율적 이용·관리는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 되어야 함을 역설, 14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가락동 수산시장 등 추석성수품 유통 및 물가현장을 시찰, 수산물 성수품 수입 및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 유통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을 물가 현장을 점검.



孫井植 한국어협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협협회장은 9월10일 자유민주연합 농림해양수산 정책분과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 포천소재 국립수목원 현장견학에 참여, 13일에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해양문화심포지엄 '해양문화의 다양성과 국토의 생명력'에 참석, 15일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20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세미나'에 참석, 21일에는 자유민주연합 주최 신보수주의 대토론회 '21세기 국가발전과 신보수주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9월12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제7차 APEC회의의 경제협력사절단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유도회 도덕성회복 시민윤리선양대회에 참석, 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9광주지역 통일강좌에 참석, 이어 한국사립중고

등학교 법인협의회 제25차 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전남공동모금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어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개소식에 참석, 11일에는 유네스코 한중교류회의 환영식에 참석, 16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취임식에 참석, 17일에는 제3회 국제항만심포지엄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 9월14일 광주이동통신이사회에 참석, 16일에는 법무부장관 초청만찬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9월11일 경문고등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공사 준공식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광주지방국세청 제2개청식 행사에 참석, 2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초청간담회에 참석, 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99광주지역 통일강좌를 개최, 10일에는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자문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8일 전경련 조찬청에서 열린 유도회 도덕성회복 시민윤리선양대회에 참석, 16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17일에는 한국능력협회 조찬세미나에 참

석, 21일에는 자유총연맹 이사회에 참석, 28일에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주최한 내쇼날데이 행사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9월2일 전남 무안군 우회도로 공사현장에 출장.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5일 제주도 서귀포간 도로확장 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3일 제주 칼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9기 출범식을 개최, 10일에는 제주국제회의회에 참석, 15일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관련 문화관광부장관 초청오찬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9월5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합의기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장녀 주영 양이 오는 10월8일(금)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래광웨딩하우스(안세병원 뒤)에서 화촉을 밝힌다.

#### 주소변경

▲손광식씨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상무이사)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서광아파트 102동 708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

####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삼부토건주식회사(회장 조남욱)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용)  
■개인  
▲김기홍씨(전 수산청 과장)  
▲이경희씨(해양수산물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관리과장)

#### 부음

▲신순균씨(해양수산물 어촌어항과 토목사무원)는 9월17일 모친상을 당했다. 장지는 경남 사천시 공원묘지.

#### 인사

▲해양수산물 □전보 △국립수산물진흥원 어업자원부장 박차수 □승진 △국립수산물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장 김인영 △국립수산물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 박영재(9월7일자)

#### 의록

## 내년 SOC투자예산 올해 수준 지역균형개발·간선도로 집중 투자

내년 SOC투자예산은 올해 수준인 13조원에 머물 전망이다.

그러나 남해안 등 지역별 관광벨트개발과 초·중·고교 시설개선, 수해복구, 지역균형개발 등 건설수요를 유발하는 시설투자사업을 적극 지원케된다.

진남 기획예산처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 내년 200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관련, "내년도 재정규모는 일반과 재정특별회계를 합쳐 93조원으로 잠정 수립, 올해 2차 추경에 비해 4.5% 증액시키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SOC투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업 등록제한 대폭 완화

#### 내년에 관련법 개정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형집행이 종료되면 건설업과 감리업 등 건설관련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질서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위반자에 대해 건설관련업종과 직종에 적용해온 자격제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들 업종과 직종은 건설업, 감리전문업, 감리원, 건

의 경우 교통시설 등 완공사업 위주로 집중투자, 올해 수준인 13조원대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SOC투자사업안이 포함된 내년 정부예산안은 지난 6일 시·도지사 예산협의회와 9일 열린 당정협의회를 거쳐 2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예산처는 내년 SOC투자사업의 경우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주점 편성하되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간선망,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주요간선철도사업의 경우 조기완공토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예산처는 지난 7월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16조8천억원 규모의 SOC분야 사업 예산안의 분야별 점도 작년에 착수했다.

축사 등이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중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형집행이 종료되면 건설업과 감리전문업을 등록,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건축사자격을 얻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재정규모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성장률 전망치인 5-6%를 넘지않도록 편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어서 SOC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양을 것이라고 예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산처는 내년 건설수요의 창출을 위해 남해안관광벨트와 가야·백제·경북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시설투자사업에 예산을

#### 地自體공사適審기준제정 실적평가기준 대폭 완화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입찰참여업체의 시공 실적 평가기준이 국가기관에 비해 크게 완화하는 대신 경영상태의 비중이 높아진다.

또 해당 발주처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된 지역업체에 가점이 부여되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별도로 간소화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케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새로 마련,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재경부의 적격심사기준이 담겨 있는 국가계약법령이 공포된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PQ(사전자격심사)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재경부 회계예규와 같이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배점을 각 70 대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환경훼손여부와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팔당호 특별대책과 낙동강수질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하는 등 환경시설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항구 수해방지시설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키로 했다.

내년 주요 신규 건설사업은 음성-제천간, 무안-광양간 등 총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건설을 비롯해 영산강 4지구개발, 대구 패션어패럴 밸리, 수도권 남부국도 교통관리시스템 등이다.

30으로 하되 이행능력 항목 중 시공실적 부분을 공사규모 대비 100% 이상(재경부 회계예규 200%)이면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 공사배정액 3등급이상 상향 99 유자격자 등록기준 확정

조달청 시설공사 등록업체에 적용되는 등급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각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는 향후 발주예정 공사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3등급 이상의 경우 상향조정됐으나 4등급 이하는 다소 축소 조정됐다.

조달청은 최근 시공능력평가금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99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이차례 개정, 지난 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조정된 등급별 시공능력평가금액을 보면 1등급의 경우 지난해에는 1,0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했으나 올해는 800억원 이상(시공능력평가

금액 순위 127위)으로 기존 금액을 낮췄다.

2등급은 종전 1,000억원 미만-3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미만-250억원 이상(대상업체수 162개사)으로, 3등급은 지난해의 300억원 미만-150억원 이상에서 올해는 250억원 미만-130억원 이상(대상업체수 258개사)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4등급이 130억원 미만-85억원 이상(종전 15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5등급 85억원 미만-60억원 이상(종전 100억원 미만-70억원 이상), 6등급 60억원 미만-45억원 이상(종전 7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그리고 7등급이 45억원 미만-30억원 이상(종전 50억원 미만-30억원 이상) 등이다.

#### 어항청소선 소식

10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선명	연락처
어항 901호	10. 4 - 7	오천		최동림	(휴대폰) 011-247-5592 (호출기) 012-247-5592	어항 902호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10. 13 - 16	연도 및 연안					
	10. 24 - 26	군산연안					
어항 902호	10. 4 - 9	성동포 및 연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호출기) 012-953-5590	어항 903호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10. 18 - 23	수동 및 연안					
어항 903호	10. 4 - 9	북동, 시산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호출기) 012-953-5591	어항 904호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10. 18 - 23	북동					
어항 904호	10. 4 - 9	안도 및 연안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호출기) 012-952-5596	어항 905호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10. 18 - 23	국동, 불산					
어항 905호	10. 4 - 13	다대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호출기) 012-1166-1358	어항 906호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10. 18 - 23	지세포, 구조라					
어항 906호	10. 4 - 13	다대포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호출기) 012-909-5594	어항 907호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10. 25 - 30	양포					
어항 907호	10. 4 - 9	거진, 대진, 남애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호출기) 012-953-5597		
	10. 18 - 23	사천, 금진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죽어가는 바다환경      깨끗한 우리바다      어업터전 무너진다      풍요로운 우리마음

# 다기능 어항건설 어촌 소득증대 도모키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정책 발전방향 제시

해양수산부는 국토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연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키 위해 5개 권역별로 특성있는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풍요로운 다기능 어촌 개발을 위해 전국 연안어촌을 225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득기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마리나, 관광 등이 가능하도록 다기능 어항을 건설,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

키로 했다.

또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정보통신·무역기능을 갖춘 대단위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키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해양수산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총 인구의 33%가 거주하고 국토의 33%를 차지하는 연안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을 5개권역으로 나눠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연안을 서해중부권과 서해남부권, 남해서부권, 남해중·동부권, 동해권 등으로 나누고 서해중부권의 경우 물류난해소를 위한 물류 거점기지로 중점 개발키로 했다.

또 서해남부권은 서해안시대의 물류관문 및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남해서부권은 수산업 및 해양관광기지로 개발키로 했다.

남해중부권은 해양진출기

지 및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동해권은 내륙해양연계 휴양기지로 각각 육성키로 했다.

또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해 부산신항 배후부지 259만평과 광양항 365만평에 정보통신·무역·금융기능을 갖춘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수출촉진과 외자유치를 위한 관세자유지역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 진전에 맞춰 남북한간 연안해송항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안화물전용부두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연안해송을 주축으로 철도, 도로 등과 같은 연계수송망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 양식어업 생산물 150만톤으로 증대 기르는어업 발전종합대책 수립추진

해양수산부는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EEZ체제 및 한·일 어업협정 등 변화된 어업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르는어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 변화된 어업질서에 맞춰 '잡는 어업'에서 감산이 예상되는 수산물을 '기르는 어업'에서 보전 생산함과 아울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족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해상 및 육상에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기반시설을 확충

하며, 첨단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양식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어선어업에 의한 지속적인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시설 확대, 수산종묘 대량생산·방류, 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고 바다목장을 확대 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하여 현행 80만톤인 양식어업 생산을 150만톤으로 증대할 계획이며, 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르는 어업'이 어촌의 기간 소득 및 수산물 공급산업으로 정착되고 연안의 수산자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2004년까지 5,700억 투입

# 인공어초시설 대폭 확충키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키 위해 대규모 수산자원 조성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어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종합대책에서 올부터 오는 2004년까지 총 5,700억원을 투입, 현재 13만3,000ha인 인공어초시설을 24만6,000ha까지 확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해역별

어종 특성에 적합한 신종 어초를 개발, 보호키로 하고 부어초등 23종의 시험어초의 상용화를 꾀하는 한편 연구어초 모형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산관련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촉진키 위해 부지 10만평에 종합생산시설(2만평), 중간육성시설, 연구관리시설, 기술교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연건평 4만평 규모의 수산자원 조성센터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해안 및 산간

부, 관광단지 주변 6개 도에 2만5,000평 규모의 첨단 육상양식단지를 조성,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일정 해역이나 만을 중심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대규모 해상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도서지역에는 중소규모 해상양식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를 포함 오는 2004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 어초기반시설 사업을 대폭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공사낙찰률 80%까지 상향”

## 건교부 장관 업계 간담회서 밝혀

이건준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73%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인 담합입찰 근절 의지를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앞으로 건설업계 스스로 입찰담합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정부도 담합문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사 낙찰률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국민은 건설분야가 가장 부패와 부조리가 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 “이같은 국민의 이미지 개선이 없이는 낙찰률 제고나 금융지원, 증시를 통한 자본조달 등 건설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18일 업계와 정부가 건설계약현장을 선포하고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음을 높이 평가하고 ‘제값 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가 전체 건설인이 지향해야 할 건설업계의 새

로운 이미지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15% 확대,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기능공 등 업계간의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인위적인 업역구분에서 탈피, 시장원리에 의한 업역간 협력체제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SOC시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들어 건설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건설산업이 발전하고 위상을 찾으려면 건설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체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설업계 대표들은 공공건설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소규모공사 시공실적배점 완화

## 재경부 17건 회계예규 개정

건설업체가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공사를 정지하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60일 이상 장기적으로 중지될 경우 손해에 대해 일정규모의 자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3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입찰에 적용하는 간이 적격심사제의 심사기준을 개정, 시공실적의 배점을 완화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9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적격심사기준 공동도급운용요령 등 17건의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회계예규 가운데 공사일반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권을 신설, 공공발주기관이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공사를 정지하는 권한을 갖게돼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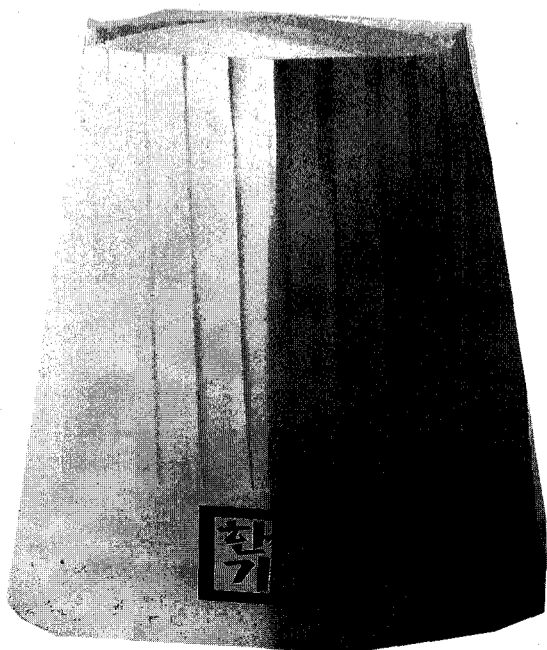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정지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해야 한다.

재경부는 공사정지에 따른 자연보상금 규정도 새로 마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사가 60일 이상 중지됐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보상토록 했다.

이같은 공사정지권과 자연보상금 규정은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라 간이적격심사 대상인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심사항목 가운데 시공실적을 대폭 완화, 신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공사규모별 심사항목에 시공경험 만점은 △30억원 이상 공사 3배 △30억 미만-10억원 이상 2배 △10억 미만-5억원 이상 2배 △5억원 미만 1배 등으로 개정됐다.



# 게맛살 맛이 일류호텔급?

일류 호텔들도 믿고 찾는 한성 게맛살의 맛 —  
게맛살 하면 역시 한성게맛살입니다.

모양과 색깔이 똑같다고 다 같은 게맛살일까요?  
맛에서 느끼까지 한성게맛살은 정말 달라요.  
한성게맛살은 바다에서 갓잡은 신선한 명태살로 만들어 더욱 쫄깃하죠.  
또 달지 않아 맛살 고유의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 있죠.  
게다가 방부제나 인공색소를 전혀 안쓰니까  
얼마나 기분이 깨끗하겠어요.  
일류호텔들이 한성게맛살을 고집하는 것도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한성게맛살은  
맛에서 느끼까지 일류호텔급이거든요.





발암성 식품을 잘 먹으려면

일본인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1930년 초까지는 전체 사망률의 약 3%였었다. 그것이 전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82년에는 드디어 제1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과 함께 마스크 같은 데서도 암에 관한 정보를 빈번히 보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고조되어 일상화 제도 암에 대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구운 생선의 탄 부분은 안 좋다, 전복에도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등등 의심을 갖고 이러한 식품을 일일이 식탁으로부터 추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발암 식품이라고 증명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폐암이 되는 것 같이, 유해하다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만이 암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배를 계속 피워도 좋다는, 좋지 않는 식품을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발암 식품이든 그 무엇이든 불량 식품까지 일일이 추방하는 것에 의해 식생활의 불균형이 생겨 버린다는 것이다. 생선은 조림만 먹고, 산나물

은 먹지 않으며 그 이외의 것만으로 식사를 한다면 영양학적으로는 그만큼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미각적인 면으로도 고정 습관이 되면 오히려 폐해 쪽이 커진다.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건강의 기본이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병이나 간장병 같은 암에 비길 만큼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즉 긴 안목으로 볼 때 암의 예방만을 생각한 식사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하더라도 몸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치우치지 않게 보통대로 먹도록 한다.

심술궂게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제까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장래 발암성이 있다고 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단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가능하면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다.

광택을 내기 위해 왁스가 칠해진 레몬, 노랑게 물들인 단무지, 선명한 핑크색을 칠한 명란젓 같이 화학물질에 의해 가공된 식품은 생선의 탄 부분보다도 더 안 좋아서 인간의 몸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3.4.5 시공관리

(1) 재료 사석은 기초로서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지반에 전달하거나 피복재로서 파랑으로부터 기초비탈끝 등의 세굴을 방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① 석재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KS) 부순골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 이 규격들을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경제적이 못할 경우는 독자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따로 규격을 정하기로 한다.

② 사석으로서의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사암류, 응회암류, 규암류 또는 이에 준하는 암석을 과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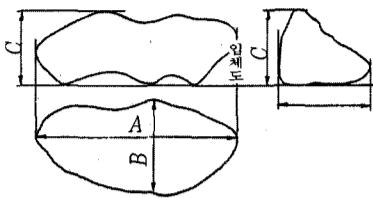
③ 사석으로서의 석재는 편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된다. 편평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이상인 것을 말하고, 가늘고 길다는 것은 길이가 폭의 3배이상인 것을 말한다. 석재의 종류는 표 3.4.1에, 석재의 형상은 그림 3.4.14에 제시한다.

표 3.4.1 암(석재)의 종류와 암질

Table with 3 columns: 종류 (종류), 암축강도 (암축강도), 허용범위 (허용범위). Rows include 경암, 준경암, 연암.

(35)

第3章 基礎工



여기서 A:장축의 최대길이(cm) B:A에 직각으로 잴 최대길이(cm) C:투영면에 수직으로 잴 최대길이(cm)

그림 3.4.14 석재의 형상

④ 중량의 규격에 대하여는 현장에 중량별로 견본석을 두어 석질이나 크기(중량)에 대하여 합격여부를 참고하도록 지도한다.

(2) 품질관리

① 비중·강도

시공에 앞서 공공기관의 시험에 의한 석재의 시험성적표를 제출시켜서 설계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형상·외관

석재는 검수·투입시의 관찰으로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서 편평하고 가늘고 긴 것이 아니고 풍화·동파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한다.

(3) 규격 관리

사석공의 규격 관리항목과 그 허용범위는 표 3.4.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4.2 사석공의 규격 관리기준

Table with 6 columns: 항목 (항목), 관리항목 (관리항목), 측정방법 (측정방법), 측정범위 (측정범위), 결과의 정리방법 (결과의 정리방법), 관리기준치 (관리기준치). Rows include 기초, 천단고, 속고르기, 고르기를 하지 않는, 천단폭, 연장.

새천년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이어줌 - 현재·과거·미래

새즈믄해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의 인류가, 지난 1000년의 대립과 상쟁, 갈등을 정화하여, 평화와 상생과 행복의 새 시대로의 '연결'의 영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가는 비전이다. 시간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치의 대전환을 이루어 미래사회의 후손을 위한 공존과 상생, 창조의 이어줌이다.

천년 사업은

평화, 환경, 인간, 지식창조, 역사라는 다섯 가지 내용 축과, 비전과 방향 제시, 천년화 사업, 천년 행사, 관련 행사, 방법과 실행이라는 다섯 가지 형식 축으로 각각 서로 교차하며 엮여진다. 이 두 축을 지지하는 이념축은-엄지손가락-은 '평화와 비전, 방향의 제시'이다.

이러한 천년 사업은 일시적 행사가 아닌 장기적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새천년 특별법' 등 제도적,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2000년 새 천년의 첫해가 지난

후 '새천년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질 것이다.

평화의 천년화

전쟁에서 평화로!

한번도 외침을 한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이 20세기 마지막 분단국으로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 파과의 패러다임에서 창조의 패러다임으로!

지난 1000년간의 갈등과 상극의 시대에서 이제 새 즘해를 맞이하는 한민족이, 새시대를 평화와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

• 우리의 개인, 가정, 사회,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시키는 천년화 계획으로, 서로가 남과 다른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것의 어울림을 창조하는 사업임

• 지난 세기의 전쟁의 수난국으로서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

새천년/천년화 사업

시간적 대전환의 시대에 가치의 대전환을

은 분단국가에서 미래와 희망과 평화의 발신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임.

환경 보존의 천년화

지배에서 협화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문화와 문화 간에 공존의 관계를 유지 천년이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환경을 창조

기본방향

• 자연, 가정, 사회, 국제환경을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화 사업으로 삼라만상을 생명으로 보고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정복이 아닌 교류, 상호보완으로 바라보며 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천년화사업

기본컨셉

• 상극에서 상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문화와 문화의 상생원리, 공존의 관계 유지

• 천년이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환경을 창조

사업 예

- 멸종위기의 우리 천연 기념물 조사
• 반딧불이 마을 : 반딧불을 다시 살리는 것
• 공유공간 : 사회환경 디자인
• 환경박람회와 에코도시 모델개발

새 인간의 천년화

폐쇄에서 개방으로!

정보, 환경, 문화 Mind를 가진 새 천년을 이끄는 새 젊은이의 상을 교육 "21세기 새 천년에 적응할 수 있는 새 인간형의 만들기과 활동" "각 분야 전문직의 사고, 의식, 행동 등" 의식전환 이미지를 바꾸는 새천년의 약속

기본방향

• 정보, 환경, 문화 마인드를 가진 새천년을 이끌어가는 새즈믄이의 상을 제시

• 21C 사회환경에 적응하며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천년의 미래인간상 제시

• 지난 세기의 폐쇄형 인간형을 전환하고, 개방적, 창조적 인간형을 창조하기 위한 천년화 사업으로, 새천년의 주역인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창의력 개발 교육과 문화시대를 대비하여 예술감성을 개발 증진시켜 나감

• 태어나는 즘새동이, 젊은이에 상응하는 즘새이 2000명 선정

• 관습에서 의식의 새 패러다임으로

세부사업

- 연결 : 새천년의 약속 - 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 집단의 새즈믄 약속
• 주제 : 새천년 인간상, 인재개발-2000 즘새이 선발 / 새즈믄이 교육법
• 공간 : 즘새해 새가정 운동-즈믄해 동이 명명과 이름 나눠주기, 희망기장 주기 / 기록하는 가정주부

생활정보

생활정보